

# 東아시아 古代 佛殿의 規模와 佛像의 相關性 研究

한 정 호\*

## <목 차>

- I. 머리말
- II. 금당에 봉안되는 불상의 형식과 규모
- III. 고대 금당 건축과 불상 안치의 선후관계
- IV. 고대 금당의 불상 봉안방식
- V. 맺음말

## 국문요약

불전은 불상을 봉안하기 위한 건축이기 때문에 불상의 규모와 형식은 불전 내부의 공간설정의 전제조건이다. 이 논문은 불상의 규모가 고대 동아시아 불전 내부의 공간설정에 어떠한 영향일 미쳤는지 고찰하였다.

먼저 불상의 크기와 관련된 경전과 고대 문헌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편적으로 불전의 본존상으로 봉안되는 최소 규모의 불상은 등신불상이며, 재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장육불상 규모 이상의 불상을 금당에 봉안할 경우 금당의 건축에 앞서 불상이 안치되는 사례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등신불은 인체 규모의 불상이라는 의미 보다는 특정 인물의 신체와 동일하게 조성된 불상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불상의 규모와 봉안되는 공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석굴암을 분석한 결과 석굴암 주실의 공간설정은 본존상 크기에 맞춰 계획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석굴암 주실의 입면은 대좌를 기점으로 본존좌상의 높이의 2배로 설정되었으며,

본 논문은 2011년 10월 5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주최한 <동아시아 古代庭園 및 寺址의 연구현황과 과제> 국제학술세미나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조교수

평면의 너비 또한 이에 저촉되지 않는 규모이다. 이는 인간의 주거공간이 최소한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높이와 누울 수 있는 평면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처럼 불전 내부의 공간설정도 불상의 크기에 따라 동일한 전제조건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해석하였다.

석굴암 분석을 통해 파악된 불상봉안 원칙이 동아시아 고대 불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대 불전의 내진부를 주목하였다. 불전의 내진부는 예불공간과 구별되는 순수 불상봉안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현존하는 동아시아 고대 불전 내진부의 평면과 본존상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불상 높이의 2배 또는 대좌를 포함한 불신 높이가 내진부 측면 폭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며, 일치하지 않더라도 초과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내진부 입면의 높이는 본존이 좌상일 경우를 기준으로 불신 높이의 2배가 불전 종도리 높이를 벗어나는 예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원칙은 불신 높이가 16m에 달하는 일본 東大寺 대불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고대 불전건축의 전제조건으로 적용되었음을 뒷받침 해 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파악된 고대 불전 내진부의 공간과 불상 규모와의 상관성은 고대인들의 불상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불상이 부처를 대체하는 조각품이 아니라 생명력을 갖는 神像으로서 그 신격을 유지하기위한 공간적 배려로 이해된다.

주제어 : 금당(金堂), 불전(佛殿), 불상봉안(佛像奉安), 건축계획(建築計劃), 장육불상(丈六佛像), 석굴암(石窟庵)

---

## I. 머리말

佛像과 舍利는 불교신앙의 가장 중요한 예배대상이기 때문에 사찰의 主佛을 봉안하기 위해 건립한 금당과 사리를 모시는 탑은 사찰 조영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축이다. 금당과 탑은 불교신앙의 핵심 예배대상을 봉안하는 건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봉안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건물의 평면구성과 내부 공간의 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보편적으로 탑에서 이루어지는 사리의 봉안은 폐쇄적 성격이 강하고, 사리 자체가 일정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미립자이기 때문에 건축 내부공간에서 사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탑은 발생 이후 중층건물에 유리한 정사각형 또는 팔각의 평면을 그대로 유지하며 전개될 수 있었고, 신앙적으로 내부공간의 확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소형 舍利窟이외의 내부 공간 자체를 생략한 석탑의 출현을 보이게 된다.

금당에 봉안되는 불상은 탑에 봉안되는 사리와 달리 親見을 전제로 조성되기 때문에 개방적 성격이 강하고, 그 규모 또한 다양하다. 그리고 대승불교의 발전과 더불어 봉안되는 불상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건축 내부공간에서 불상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높다. 따라서 금당건축은 다양한 규모와 종류의 불상을 수용하고 이에 따른 의례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직사각형 평면을 유지하며 전개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금당건축은 봉안되는 불상의 규모 및 수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금당에 봉안되는 불상의 규모는 작게는 等身大의 크기에서 크게는 수십 미터에 달하는 대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그 수량은 독존에서 삼존, 사방불을 비롯한 제석·범천, 사천왕, 팔부중 등을 포함한 여러 권속이 봉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금당의 규모는 최소한 봉안되는 존상의 규모와 수량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금당의 건립은 불상을 봉안하기 위한 如法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법’이란 불교의 교리에 합당하게 불상의 성스러움을 해치지 않고 神格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방안을 의미한다. 리움미술관에 소장된 <신라백지묵서화엄경>의 寫經이 향수를 뿌리며 닳나무를 키우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고대인들의 신앙에 대한 사유체계는 오늘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경과 관련된 절차에 이러한 여법함이 담겨있음에 비추어 불

때 고대 금당건축과 불상봉안에도 분명히 신격을 유지하기 위한 모종의 원칙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함에 무리가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불상이 갖는 성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금당 내부의 공간과 불상 규모와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금당 내부 공간은 당연히 예배를 위한 의례공간도 포함되지만 불상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공간은 일본 건축에서 身舎(もや)라고 일컫는 내진 내부 공간이다. 내진부는 금당의 주인인 불상이 봉안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금당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금당 내진부의 공간규모와 봉안된 불상의 크기를 비교분석하여 일정한 규칙의 존재가 드러난다면 고대 불상봉안의 원리에 실증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 II. 금당에 봉안되는 불상의 형식과 규모

금당은 불상을 봉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영된 건축이기 때문에 금당과 불상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당의 봉안 주체인 불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불상에 대한 정보 중에서 특히 금당 내 공간과의 관계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요소로는 불상의 재료와 형식 및 규모를 꼽을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규모로 제작된 불상이라 하더라도 재질의 차이에 따라 봉안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좌상과 입상 또는 독존과 삼존 등의 형식차이에 따라 당연히 그 봉안을 위한 공간의 변화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교경전에는 불상의 크기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丈六佛像이다. 장육 불상은 석가의 身長에서 유래된 크기로 고대 동아시아 불상조성의 의례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고대 금당 건축에 많은 간섭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고대 금당과 불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금당 건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고대 불상의 형식과 규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불상의 재료와 형식

불상의 제작에는 金, 銀, 銅, 鐵 등의 금속을 비롯하여 石造, 塑造, 木造, 乾漆 등 매우 다양한 재료가 사용된다. 보편적으로 금당의 본존으로 봉안되는 불상은 等身佛 이상의 규모로 조성되는데, 어떤 재료로 불상이 제작되든지 등신

대 규모 미만의 불상은 금당 내 봉안절차에 별다른 간섭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재료에 따라 불상의 중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丈六佛像 이상의 규모로 불상을 조성할 경우 그 재질에 따라 금당 내 안치계획이 달라질 개연성이 크다.

예를 들어 304cm 높이의 일본 唐招提寺 금당의 건칠노사나불좌상과 높이 285cm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하사창리 철불좌상을 비교하자면 외형적인 크기 만으로는 唐招提寺 불상이 크다. 하지만 불상 안에 봉안하는 문제를 결부시키자면 唐招提寺 불상은 금당건축이 완료된 후라도 불상을 옮겨서 봉안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무게가 6.2t에 이르는 하사창리 철불좌상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하사창리 철불좌상을 봉안했던 사찰의 금당은 불상을 먼저 조성하고 대좌에 안치한 이후에 금당건축을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半丈六佛像 이상의 규모로 불상을 제작할 경우 금당 내 봉안절차가 달라지는 재질은 철불 이외에 금동불과 석불을 지목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목조, 소조, 건칠 재질의 불상은 무게가 가볍거나 재료를 금당 안으로 옮겨서도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상 안치에 비교적 용이한 재료라 하겠다.

불상의 형식은 불상의 자세나 구성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불상의 자세는 크게 좌상과 입상으로 구분되며, 특수한 형식으로 열반상이 있지만 중국 석굴의 부조상이나 일본 法隆寺 목탑에 봉안된 사례가 있을 뿐 동아시아 고대 금당에 열반상을 봉안한 사례는 흔치 않다.

금당에 봉안되는 불상의 구성은 독존을 최소 단위로 삼존과 이불, 삼불, 사방불, 오방불, 천불, 삼천불 등 매우 다양한 형식이 있다. 그리고 불상과 더불어 10대제자상과 불법을 수호하는 제석·범천, 사천왕, 팔부중 등 여러 권속이 함께 봉안될 수 있다. 그러므로 봉안을 계획한 불상의 수량과 이들을 봉안하기 위한 금당 내부공간의 확보가 금당 평면구성의 변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중국 석굴사원의 불상과 일본의 고대 불전, 그리고 불상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고대 사찰의 금당에 봉안되었던 불상으로는 본존상과 좌우 협시보살로 구성된 삼존불을 기본으로 여러 권속을 함께 봉안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 516년 靈太后가 건립한 洛陽 永寧寺 금당과 신라의 황룡사 중금당이다. 황룡사 중금당에는 장육삼존상을 포함하여 모두 19기의 불상이 봉안되어 있었으며, 이들 불상의 대석 가운데 17기가 현존하고 있다.

이 밖에 화엄사 각황전 해체당시 드러난 통일신라시대 장육전 유구에서도

삼존상과 권속이 봉안되었던 흔적이 확인되었다.<sup>1)</sup>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범어사의 불전과 봉안된 불상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한 범어사 『고적』에는 이층 彌勒殿 내에 미륵석상과 좌우협시보살과 더불어 각각 병기를 지닌 사방천왕을 봉안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아울러 미륵전 서쪽에 위치한 3칸의 毘盧殿에도 비로자나, 문수, 보현으로 구성된 삼존과 향화동자상을 봉안하였음을 밝혀 삼존불형식이 고대 금당에 보편적으로 봉안되었음을 보여준다.<sup>2)</sup>

한편 금당에 단독의 여래상을 배치하는 형식은 화엄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문종 8년(1054)에 건립된 부석사 圓融國師碑에는 부석사 금당의 아미타불상 조성에 대한 의상대사의 교학적 해석이 기록되어 있어 화엄종과 獨尊像 봉안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절(부석사)은 의상조사께서 중국인 西華에 유학하여 화엄의 法柱를 智儼으로부터 전수 받고 귀국하여 창건한 사찰이다. 금당에는 오직 아미타불상만 봉안하고 좌우협시도 없으며 또한 금당 앞에는 影塔도 세우지 않았다. 제자가 그 이유를 물으니 의상스님이 대답하기를, “법사이신 지엄스님이 말씀하시기를, ‘一乘 아미타불은 열반에 들지 아니하고 시방정도로써 體를 삼아 나고 멸함(生滅相)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이르기를, ‘아미타부처님과 관세음보살로부터 관정수기를 받은 이가 法界에 충만하여 그들이 모두 補處와 補闕이 되기 때문이다. (아미타)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지 않으신 까닭에 闕時가 없으므로 좌우보처상을 모시지 않고 영탑을 세우지 아니한 것이다. 이것은 화엄 一乘의 깊은 宗旨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하였다. 지엄 스님은 이 화엄의 宗趣를 의상에게 전해 주었다. 의상이 전수를 받은 후 원융국사에까지 전승되었으며, 그러므로 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절에 주석하게 되었던 것이다...”(밀줄 필자)<sup>3)</sup>

위에 제시한 의상대사와 제자의 금당 아미타불에 관한 대화내용을 통해 당시 불교계에서 금당 내 독존상 봉안이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다. 이후 화엄 신앙이 널리 확산되는 8세기 중엽 이후 지권인 비로자나 불상과 향마촉지인 좌상이 금당에 독존으로 봉안되는 사례가 증가한다. 그리고

1) 이장근, 「화엄사 불전의 재건과 장엄에 관한 연구」, 『불교미술』 14, 동국대학교박물관, 1997, 122쪽.

2) 『梵魚寺誌』, 아세아문화사, 1989, 20쪽.

3) “...義相師遊方西華傳住智儼後還而所創也 像殿內唯造阿彌陀佛像無補處亦不立影塔弟子問之相師曰師智儼云一乘阿彌陀無入涅槃以十方淨土爲體無生滅相故華嚴經入法界品云或見阿彌陀觀世音菩薩灌頂授記者充諸法界補處補闕也佛不涅槃無有關時故補處不立影塔此一乘深旨也 儼師以此傳相師 相師傳法嗣暨于國師 國師故始末住此寺焉...” 李智冠, 『校勘釋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2』, 伽山佛敎文化研究院, 1995.

위의 사료는 금당 전면에 탑이 배치되지 않는 無塔式 가람이 금당에 봉안된 불상의 존격에 의해 결정된다는 중요한 근거자료를 전해준다. 다시 말해 열반에 들지 않는 法身佛이나 아미타불상이 금당에 봉안될 경우 금당 앞에 열반의 상징인 墓塔을 건립하는 것은 교리에 맞지 않다. 실제로 고대 사찰 가운데 아미타불상을 봉안한 금당의 전면에 탑이 배치된 사례는 없다. 따라서 무탑식 가람의 성격은 아미타신앙과 관련된 사찰일 가능성이 크다.

## 2. 불상의 크기와 丈六佛像

불상의 크기는 매우 다양하지만 금당의 본존상으로 봉안되는 불상은 규모에 따라 크게 等身佛像, 丈六佛像, 大佛像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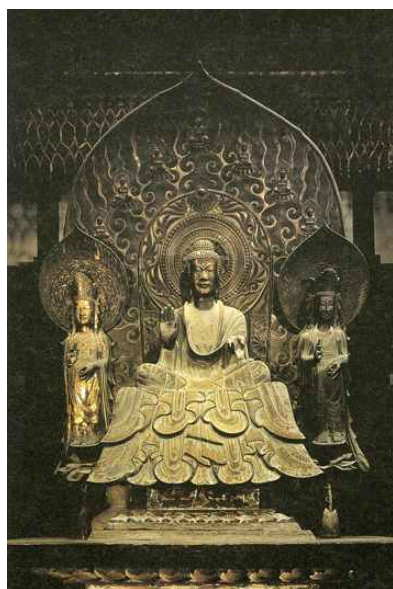
먼저 등신불상은 인체와 같은 크기로 조성된 불상을 말한다. 동아시아에서는 입상일 경우 보통 5~6척(150~180cm)의 높이로 조성되며, 좌상일 경우 3척(90cm) 전후로 조성된다. 등신불상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금당의 본존상으로 봉안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실제로 등신불상과 관련된 중국의 문헌자료를 살펴보면 사찰 금당에 봉안하기 위한 제작 보다는 궁궐 봉안이나 奉送을 위해 제작되는 사례가 많다.

표 1. 等身佛像 관련 문헌자료

| 문헌                             | 원문  | 역문(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 참조)   |
|--------------------------------|---|--|
| 『法苑珠林』권제14, 敬佛篇 p.0389 b23~b25 | …梁祖登極之後 崇重佛教 廢絕老宗 每引高僧談敘幽旨 又造等身金銀像兩軀 於重雲殿晨夕禮事 五十許年… | …(양나라 고조 등신금은상의 인연) 梁祖는 왕위에 오른 뒤에 불교를 숭상하고 노종을 폐지하여 매양 고승들을 불러와 깊은 뜻을 이야기했다. 또 등신의 금은불상 두 구를 만들어 중운전에 모시고 50여 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섬겼다… |
| 『法苑珠林』권제14, 敬佛篇 p.1026 b26~27  | …又爲太祖元皇帝元貞皇后 造梅檀等身像三區…                              | …(대당 고조 태무황제) 또 태조 원황제와 원정황후를 위하여 전단으로 등신상 3구를 조성하되…   |
| 『法苑珠林』권제100 傳記篇 p.1027 a17~18  | …又爲太武皇帝 於終南山 造龍田寺 并送武帝等身像 六軀 永充供養。…                 | …(627년) 또 태무황제를 위하여 종남산에 용전사를 지었고, 아울러 무제에게 등신상 6구를 보내어 영원히 공양하게 하였다…  |
| 『太平御覽』권657 釋部5 像               | …法顯記曰 僧尼羅國王以金等身而鑄像, 髻裝寶珠…                           | …법현기에 따르면 승리라국왕이 금으로 등신상을 주조하고 머리에 보주를 장식했다…   |
| 『續高僧傳』권제18 p.581 c10~c11       | …仁壽元年 文帝造等身釋迦六軀 …                                   | …인수원년(601) 문제가 석가상 여섯 구를 등신상으로 조성하였다…  |
| 『法苑珠林』권제38 敬塔篇 p.586 c08~10    | …敕使常侍王君德等送絹三千匹令造朕等身阿育王像…                            | 현경 4년(659)…고종은 常侍 왕군덕 등을 시켜 비단 3천 필을 보내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몸과 같은 아育왕상을 만들고…  |

표 1의 정리된 등신불상 조성사례는 모두 국왕이 불상조성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顯慶 4년(659) 高宗이 자신의 신체크기와 같은 阿育王像을 조성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나머지 기록에 등장하는 等身像의 의미도 해석에 따라 국왕 자신의 신체와 동일한 크기의 불상으로도 해석된다. 불상의 크기를 국왕 또는 발원자의 等身으로 조성하는 전통은 고대 인도에도 있었다. 현장의 『大唐西域記』에도 僧伽羅國의 금으로 만든 등신불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불상이 이 나라 선왕과 같은 크기로 주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sup>4)</sup>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고대 등신불상의 조성은 발원자의 신체크기에 맞춰진 사례가 많았을 것으로 짐작되며, 이렇게 조성된 등신불상의 봉안장소는 개인발원 사찰의 소규모 금당에 편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례적으로 등신불상이 대규모 사찰 금당의 본존으로 봉안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일본 法隆寺 금당의 석가삼존상과 같이 해당 불상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이다.



도 1. 법륭사 금당 석가삼존상

法隆寺 금당의 석가삼존상은 본존 좌상의 불신 높이가 87cm인 등신불이다.(도 1) 불상 광배에 새겨진 명문에는 이 불상이 法隆寺 창건주이자 일본 불교중흥의 성군으로 추앙받는 聖德太子의 신체크기에 맞춰서 조성한 상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sup>5)</sup> 원래 와병중인 성덕태자의 쾌유를 기원하기 위하여 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했으나 승하 후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불상은 성덕태자의 분신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법륭사 금당의 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크기의 등신석가삼존상이 본존으로 봉안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불상이 지니는 특별한 상징성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근본적으로 불상은 석가여래의 육신을 조각상으로 만든 것에서 출발하기 그 크기는 석가여래의 等身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여러 경전에 따르면 석존당시 일반인들의 신장이 8척인데 반해 석가모니의 신장은 그 배에

<sup>4)</sup> 『大唐西域記』卷11, T.2087, 934쪽. “…佛牙精舍側有小精舍 亦以衆寶而爲瑩飾 中有金佛像 此國先王等身而鑄…”

<sup>5)</sup> “…發願仰依三寶當造釋像尺寸王身蒙此願力…”

달하는 16尺이라고 전한다. 이를 근거로 불상의 높이를 16척으로 조성하고 이러한 의례에 맞게 조성된 불상을 丈六佛像이라 칭한다.

표 2. 丈六佛像 관련 경전의 내용

| 경전                             | 원문  | 역문(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 참조)   |
|--------------------------------|---|--|
| 『方廣大莊嚴經』 권제 11, p.612 c08~c09  | …頻婆娑羅王久聞菩薩得成佛道 巨身丈六紫磨金色 三十二相八十種好…           | …빈바사라왕은 말하였다. 오래부터 보살이 부처님 도를 이루었고, 큰 몸인 장육의 자마 금색 빛깔에 서른두 가지 상호와…   |
| 『薩婆多毘尼毘婆沙』, 권제9, p.561 a14~a15 | …佛身丈六常人半之…                                  | …부처의 몸은 장육으로 보통 인간은 그것의 반이다…   |
| 『高麗大藏經』 권제35 p.0854 c01L.      | …瑜伽論說滅劫百歲時人長八尺佛出於世身倍千人故長丈六…                 | 유가론에서 말하기를 멸집 백세시에 인간의 키는 8척으로 부처는 인간 몸의 배인 장육…  |
| 『經律異相』 권제4, p.015 b18~b21      | …三千國土六反震動佛宿墮落樹即屈枝 母即攀執 諸天散華 從右脅生 身長丈六 即行七步… | …삼천국토가 여섯 번 뒤집혀 흔들리고 비수가 떨어지자 나무가 가지를 굽히므로, 모후는 그것을 당겨 잡았다. 제천이 꽃을 흩뿌리는데 오른쪽 겨드랑이로부터 태어나시니, 키가 1장 6척이었다. 이내 일곱 걸음을 걸으시자… |
| 『佛說觀無量壽佛經』 p.344 b25~b27       | …若欲至心生西方者先當觀於一丈六像 在池水上…                     | …만일 지극한 마음으로 서방정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1장 6척 되는 불상이 연못 위에 있는 모습을 관하여라.   |

장육불상은 교리적으로나 규모면에서 금당의 본존으로 봉안하기에 가장 적합한 불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고대 동아시아 각국의 불교관련 문헌에는 장육상 조성관련 기록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특히 신라의 황룡사나 일본의 飛鳥寺의 예에서 보듯이 고대 동아시아 각국에 불교가 전래되고 본격적인 사찰 조영이 전개되던 시기에 왕실 주도로 건립된 사찰 금당의 본존상은 장육불상으로 제작된 사례가 많다. 장육상은 좌상과 입상일 때 각기 다른 수치가 적용되고, 입상이라 하더라도 불신의 높이를 16척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대좌와 불신을 합한 높이를 16척에 맞추는 사례도 있다. 그리고 좌상이라 하더라도 『三國遺事』에 미륵장육석상으로 기록된 경주 남산 용장사지 삼륜대좌불과 같이 대좌의 높이를 높여 장육상을 조성한 사례도 있어 丈六의 적용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육상의 판단은 그 기준설정의 어려움은 있지만 불상의 조영에 일정한 크기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그에 상응하는 도량형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에서 불상의 편년과 제작국 해명, 또는 원형복원의 중요한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장육상은 고대 금당의 본존으로 봉안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금당 내부 공간이 불상의 규모를 고려하여 계획되었다고 가정한다면 16척이라는 척도는 고대 금당의 공간구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수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장육불상을 능가하는 규모의 불상은 대불상으로 분류된다. 대불상의 조성은 미륵신앙을 바탕으로 시작되는데, 미륵관련 경전의 내용 중에는 미륵불의 크기를 장육상의 10배에 해당하는 16丈(160척) 또는 그 반인 8丈(80척)으로 기록하고 있다. 대불상은 인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중동지방에서 출현하였다. 5세기 초 인도를 여행했던 法顯의 기록에 현재의 파키스탄인 陀歷의 높이 80척에 이르는 목조 미륵보살상에 대해 언급이 있으며, 최근 탈레반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협곡에 위치한 높이 55m의 西大佛과 35m의 東大佛이 널리 알려져 있다.

중국 초기의 대불상을 대표하는 것은 北魏의 운강석굴이다. 曇曜五窟로 불리는 제 15~20굴의 높이 13.5~16.5m에 이르는 5구의 대불은 和平年間(460~465)에 曇曜가 文成帝의 후원에 힘입어 조성한 것이다. 이 불상들은 북위의 왕즉불사상이 반영된 대불로 북위 건국자인 태조 道武帝를 위시한 초기 다섯 황제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중국의 대불조성은 당대에 이르러 성행하는데, 敦煌 莫高窟의 북대불(33m), 남대불(26m), 武威 天梯山石窟의 대불(26m), 永靖 炳靈寺石窟의 대불(27m), 四川省 樂山の 凌雲寺대불(71m) 등 주로 둔황에서 하서회랑을 따라 장안, 낙양에 이르는 고대 교통로 상에 분포한다.<sup>67</sup>

대불상은 사찰의 금당 안에 봉안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절벽을 굴착한 석굴사원이나 마애불의 형태로 제작되고, 평지가람의 목조 불전



도 2. 일본 나라 동대사 대불전

안에 봉안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대불상을 목조 불전에 봉안할 경우 그 건물은 철저하게 불상의 규모를 고려하여 설계되기 때문에 특수한 불전건립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天平勝寶 4년(752)에 점안식을 거행했던 東大寺 대불을 봉안한 금당의 창건당시 규모는 정면 11칸(약 86m), 측면 7칸(약 50m)의

<sup>67</sup> 宮治昭, 『巨大仏の系譜 -彌勒信仰と盧舍那仏』, 『東大寺のすべて』, 奈良國立博物館, 2002, 22~26쪽.

평면에 높이가 47m에 달하는 기념비적인 건물이었다.(도 2) 그밖에 대불상을 목조 불전에 봉안한 고대 기록으로는 당 則天武后 洛陽城 안의 天堂에 높이 100여 척의 건칠대불을 조성했으며, 미완에 그쳤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白司馬坂에 동계대불 조성을 추진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례로는 755년 경덕왕이 무게 30만 6,700근의 동으로 藥師如來像을 조성하여 분황사에 봉안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전한다.

### III. 고대 금당 건축과 불상 안치의 선후관계

불상은 佛身과 臺座와 光背로 구성되기 때문에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불상의 크기가 어디를 기준으로 측정된 크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리고 같은 장육불상이라 하더라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사용되는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규모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황룡사 장육존상의 높이는 금당지 柱間분석을 통해 도출된 고려척 1척 길이(35.666cm)의 16배(丈六)에 해당하는 약 570cm의 불상으로 복원되고, 唐尺이 보편화된 통일신라시대의 장육상은 약 480cm 규모로 조성되며, 周尺이 적용될 경우 4m 전후의 불상도 장육상에 해당한다. 여기에 坐像과 立像에 따라 규모가 다르게 제작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헌에 기록된 불상의 크기를 일반화시켜 접근하기는 곤란하다.

금당의 건축과 관련하여 불상의 규모는 내부 공간구성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불상의 크기에 따라 봉안절차도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대 사찰의 금당에 봉안되는 불상의 규모는 최소 등신불상 이상의 불상이 봉안되는 데, 등신불상이 봉안되는 경우와 장육불상 이상 규모의 불상이 봉안되는 경우 금당 건축과 불상 안치는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출입구의 규모나 불상의 무게를 고려할 때 금당에 등신불상 규모의 불상을 봉안할 경우 금당 건축이 완공된 후에도 불상 안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불상의 재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장육불상 이상 규모의 불상을 봉안할 경우에는 완공된 금당 건물 안으로 불상을 들여 안치하는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불상을 금당보다 먼저 조성할 경우 완공된 금당에 안치하기가 여의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흥미 있는 기사가 『日本書紀』 推古天皇條에 실려 있다.

／한정호, 「황룡사 중금당지 불상대석에 대한 고찰」, 『미술사연구』24, 미술사연구회, 2010, 48~51쪽.

“13년(604) 여름 4월 辛酉朔 천황은 황태자 대신 및 여러 왕 여러 신하에게 명하여 모두 똑같은 서원을 하기로 하고 처음으로 銅과 자수로 장육불상 각각 한 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鞍作鳥에 명하여 불사공으로 하였다. … 14년 여름 4월 乙酉朔 壬辰, 동과 자수 장육불상을 각각 완성하였다. 이날 장육동상을 원흥사의 금당에 안치하여 하였으나 불상이 금당의 문보다 높아서 당에 모실 수가 없었다. 여러 공인들이 금당 문을 부수고 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그런데 鞍作鳥는 우수한 공장이어서 문을 부수지 않고 당에 들여놓을 수가 있었다”(밀줄 필자)<sup>8)</sup>

위의 내용은 고대 금당의 불상안치 과정에서 야기된 불상의 부피와 금당의 출입구 크기에서 비롯된 문제지만 불상의 무게 또한 완공된 금당 내 불상 안치에 제약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아직까지 고대 舉重技術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지만 금속이나 석조장육불상 규모의 불상을 운반하고 안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공간이 필요했다고 추정된다. 고대 거중기술이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본다면 최근 공개된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 고대 거중기술을 추정하는데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석탑의 보수와 관련된 기록이기는 하지만 이 기록에 따르면 석탑의 축조에는 비계의 설치와 함께 도르래가 활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 내용 중에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석가탑의 1층옥개석을 내리는 작업에 300여명이 동원되고도 내리지 못하여 노비 50명을 더 추가해서야 내릴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9)</sup> 폭 266cm, 두께 82cm의 석가탑 1층옥개석을 드는데 350여명이 인력이 필요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불상의 운반과 안치에도 막대한 인력과 공간이 필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장육불상 이상 되는 규모의 불상을 금당에 안치할 경우, 금당이 완성된 이후에 불상을 봉안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랐을 것이다. 그러므로 불상 재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범당을 먼저 건립하고 불상을 안치하는 현대 사찰건축의 공정과 달리 고대에는 불상을 먼저 조성하여 대좌에 안치한 이후 금당건축에 착수하는 사례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대 동아시아 금당 내 불상 봉안과 관련하여 불상을 먼저 안치한 이후에 금당건축에 착수한 사례는 여러 문헌에서 확인된다. 그 가운데 일본 奈良의 東

<sup>8)</sup> 『日本書紀』卷22 “十三年夏四月辛酉朔 天皇詔皇太子大臣及諸王 諸臣共同發誓願 以始造銅繡丈六佛像各一軀 乃命鞍作鳥爲造佛之工 … 十四年夏四月乙酉朔壬辰 銅繡丈六佛像並造竟 是日也 丈六銅像坐於元興寺金堂 時佛像高於金堂戶 以不得納堂於是 諸工人等議曰 破堂戶而納之 然鞍作鳥之秀工 以不壞戶得入堂.”

<sup>9)</sup> 노명호·이승재,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 『불국사 석가탑 유물 - 중수문서』, 국립중앙박물관, 2009, 73쪽.

大寺 大佛과 大佛殿은 불상의 조성과 불전의 건립과정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문헌자료가 남아있어 고대 불상 조성과 불전 건축의 진행과정을 엿볼 수 있다.

표 3. 東大寺 大佛 조성과정

| 연 대            | 제 작 과 정                      |
|----------------|------------------------------|
| 天平15년(743) 10월 | 聖武天皇 금동노사나불상 조성 발원           |
| 天平16년(744) 11월 | 紫香樂에서 대불 體骨柱 설치              |
| 天平17년(745) 11월 | 平城宮으로의 遷都로 인해 현재의 大佛鎮座地로 이동  |
| 天平19년(747)     | 8회에 나누어 대불본체 주조              |
| 天平勝寶元年(749)    | 이후 나발제작, 도금 등의 후속작업          |
| 天平勝寶4년(752) 4월 | 개안대법회 거행                     |
| 天平勝寶8년(756)    | 개안법회 이후 5년여에 걸쳐 대와 연판 주조(추정) |

東大寺 대불은 天平 15년(743) 聖武天皇에 의해 발원된 이후 天平勝寶 8년(756)에 이르기 까지 약 13년에 걸쳐 제작된 불상이다. 높이 약 16m에 이르는 대규모의 금동불상이기 때문에 불전 건축은 불상제작이 대부분 마무리 된 단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 사료를 비교한 결과 대불전의 조영은 불상 본체 주조가 완료된 天平勝寶元年(749) 이후 공사가 시작되어 강당 건립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天平勝寶 4년(752)년 경에 완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있다.<sup>10)</sup>

이처럼 금당 건축에 앞서 불상 안치가 선행되는 사례는 대불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육불상의 조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된다. 『삼국유사』에 764년 진표율사의 금산사 미륵장육상 주성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실려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불상이 완성된 후 금당에 봉안되기까지 약 2년이 소요되는데, 이 공백은 금당 건립에 소요된 기간으로 추정된다.

“...이에 율사는 施主를 권하여 미륵장육상을 만들고, 또 미륵보살이 내려와서 계법을 주는 모양을 금당 남쪽 벽에 그렸다. 像은 甲辰年(764) 6월 9일에 완성하여 丙午年(766) 5월 1일에 금당에 모셨으니 이 해가 大曆 원년이였다.”<sup>11)</sup>

금당을 건립하기에 앞서 장육불상을 먼저 조성하여 안치한 기록은 『삼국유사』 권3 皇龍寺丈六條에도 보인다. 기록에 따르면 장육존상을 완성하고 황룡사에 모셨더니 이듬해에 불상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발꿈치까지 흘러내려 땅이

<sup>10)</sup> 榮原永遠男, 『東大寺の歴史』, 『東大寺のすべて』, 奈良國立博物館, 2002, 12쪽.

<sup>11)</sup> 『三國遺事』卷4 關東楓岳鉢淵菴石記 “... 師勸檀緣 鑄成彌勒丈六像 復畫下降受戒威儀之相於金堂南壁 於甲辰六月九日鑄成 丙午五月一日 安置金堂...”

한 자나 젖었고, 이를 진흥왕이 승하할 조짐이었다고 해석하였다. 이어서 황룡사 장육삼존상이 주조된 이후 약 10년이 경과된 진평왕 6년(584)에 이르러 황룡사 금당이 완성되었다고 기록으로 볼 때, 574년에 장육삼존상이 주조된 이후 곧바로 황룡사에 안치한 상태에서 금당 건립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황룡사 장육삼존상이 금당건립에 앞서 안치되었다는 사실을 발굴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졌다. 황룡사지 발굴조사 당시 장육삼존상대석 주변에서는 직경 60cm 내외의 작은 구멍들이 남쪽과 북쪽에서 발견되었다. 이들 구멍은 대석 후면에 두 줄로 8개, 그리고 전면에서도 두 줄 구멍 6개가 발견되었다. 동일한 구멍들은 장육삼존상 대석 외의 동서쪽 불상대석 전면에서도 발견되었는데,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는 이들 구멍이 불상을 안치하기 위한 가설용 비계구멍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 구멍은 토층조사를 통해 초석이 놓이기 이전에 가설된 것으로 확인되어 건물이 세워지기 이전에 불상의 배열과 안치가 먼저 행해졌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해석하였다.<sup>12)</sup>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이상의 내용은 기록으로만 전하는 불상 조성금당의 건립과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실증자료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유구의 해석에 있어 불상 주변에서 발견된 구멍이 불상을 세우기 위한 비계설치 용도로 추정하기보다는 건물이 완비되기까지 안치된 불상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세웠던 흔적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불상이 안치되고 금당이 완비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동안 비바람으로부터 불상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이 필요했을 것이다. 황룡사 금당지의 불상대석 주변에서 발견된 구멍의 배치는 장육삼존상대석 주변에만 설치된 것이 아니라 좌우의 10대제자상대석과 동서측의 사천왕상대석 주변에도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황룡사 금당지의 불상대석 주변에서 발견된 구멍은 단순하게 불상을 세우기 위한 비계를 설치했던 흔적이 아니라 금당이 완비되기까지 불상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건물의 掘立柱를 설치했던 흔적으로 봐야할 것이다.<sup>13)</sup> 앞으로 다른 절터의 발굴조사를 통해 금당지에서 이와 유사한 유구가 확인된다면 불상과 금당의 건립순서는 물론 불상의 규모나 재질을 추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12) 문화재관리국, 『황룡사지 발굴조사보고서』1, 1984, 5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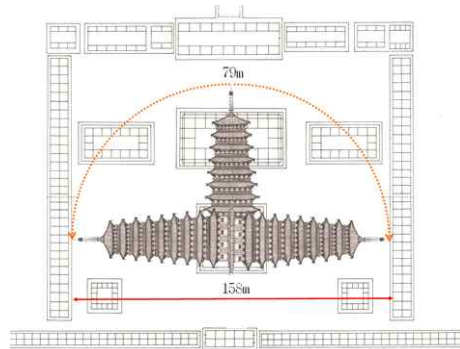
13) 한정호, 앞의 논문, 2012, 52~53쪽.

#### IV. 고대 금당의 불상 봉안방식

금당 건축은 불상을 봉안하고 불교도들의 예배의식에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당 건축의 설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불상 봉안을 위한 如法한 공간과 예배를 위한 의례공간이다. 이 가운데 금당의 의례공간에 대해서는 한국 고대 사원의 불전 26개소를 單室形式, 前後二室形式, 內外陣二重形式으로 구분하고, 이들 공간에서 이루어진 念佛, 拜禮, 繞匝 등의 의례행위를 고찰한 선행연구가 있다.<sup>14)</sup> 이장근의 연구는 건축의 구조 문제 위주로 진행되던 불전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불교도들의 공간 활용문제로 시야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선구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정작 금당의 핵심인 불상과 내부 공간의 구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금당의 주인은 불상이기 때문에 금당 내부 공간을 계획함에 있어 의례공간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불상 봉안을 위한 如法한 공간의 조성이다. 금당건축에 적용되는 여법함이란 우선 불교의 교리체계에게 맞게 배풀어진 다양한 장엄을 떠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미타불상을 봉안한 금당은 서방극락정토를, 약사불상을 봉안할 경우 동방유리광정토를 금당 건축에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불교의 교리를 떠나서 금당이 부처님이 머무는 집이라는 단순한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인간의 주거공간이 사람의 신체활동에 맞게 설계되듯이 금당 역시 주인인 불상의 크기에 적합한 공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불상에 얽힌 여러 영험담에서 볼 수 있듯이 고대 불교도들에게 불상은 부처를 대신하는 모형이 아니라 생명력을 갖는 聖體로 인식했다. 따라서 고대 불교도들이 금당을 건축하고 불상을 안치하는 것이 불상을 속박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면 불상이 갖는 神格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적 배려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간적 배려란 금당에 봉안되는 불상의 크기와 연계된 금당 내부 공간구성의 기본 원리를 뜻한다. 필자가 금당 내 불상 봉안에 모종의 원칙이 존재한다는 발상을 하게 된 계기는 황룡사와 감은사의 조영계획을 탐구를 통해서 경도된 바가 크다. 당시 연구에서 황룡사 구층탑과 감은사지석탑의 위치와 크기는 금당의 前庭에 해당하는 회랑 내곽의 평면공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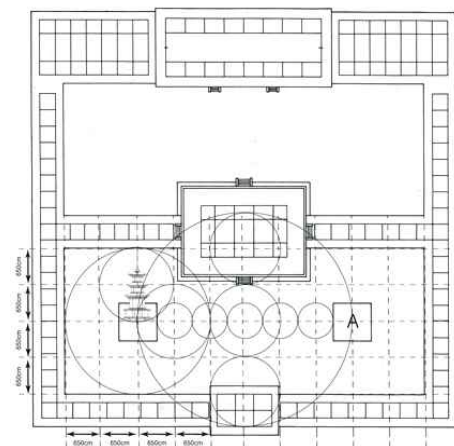
<sup>14)</sup> 이장근, 「한국 고대 불전건축의 장엄법식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12, 한국미술사교육학회, 1998.



도 3. 황룡사 구층탑의 높이와 가람 평면과의 관계  
圖解

범하지 않게 하는 건축의장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신라 사찰조영의 특징 의례로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황룡사에서 보이는 탑과 前庭 평면의 공간구성원리는 쌍탑가람인 감은사에도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은사의 사역은 익랑을 경계로 전후 2개의 영역으로 구획된다. 전정의 영역은 동·서회랑과 남회랑, 그리고 동·서익랑으로 두른 공간으로, 각 회랑 기단의 내측 지대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평면규모는 대략 남북 길이가 2,600cm, 그리고 동서 길이 6,500cm가 된다. 전정의 평면규모와 석탑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석탑 지대석 한 변의 길이가 전정의 남북과 동서 길이의 4분의 1과 10분의 1에 일치하는 650cm이고, 석탑 전체 높이는 그 2배에



도 4. 감은사지 석탑의 위치와 가람 평면과의 관계  
圖解

여러 문헌자료를 통해 225尺이라는 탑의 높이가 알려져 있는 황룡사 구층탑은 탑의 중심을 기점으로 동·서회랑과 직각이 되게 탑을 놓혔을 때 그 찰주의 끝이 동·서회랑 내측 기단 지대석의 끝과 일치한다.<sup>15)</sup>(도 3) 따라서 탑과 가람의 평면과의 관계에서 탑의 중심축을 기점으로 탑을 회랑과 직각이 되게 놓혔을 때, 회랑을 침

해당하는 1,300cm에 맞춰서 건립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석탑이 배치된 위치는 놀랍게도 전정의 주위를 두르고 있는 각 회랑 기단의 內側 지대석 끝에서 상륜부를 포함한 석탑 전체의 높이(1,300cm) 만큼 떨어진 지점에 중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석탑의 중심을 기점으로 석탑 전체를 익랑이나 회랑 쪽으로 직각으로 놓혔을 때 찰주의 끝은 각 회랑의 내측 기단 지대석의 끝 선과 정확하게

<sup>15)</sup> 김동현, 「皇龍寺の建築計劃に關する研究」, 東京大學 博士學位論文, 1992, 172~173쪽.

일치한다.<sup>16)</sup>(도 4)

고대 사찰 조영에서 탑과 회랑 내곽의 평면 공간 사이에 일정한 원칙이 존재했다면 탑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불상의 크기와 금당 내부 공간 사이에도 모종의 원칙이 존재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고대 금당의 불상 봉안에 이러한 원칙이 존재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창건당시의 금당과 불상이 현존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검증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고대 자료로는 석굴암이 유일하다.

8세기에 조성된 석굴암 主室은 일반 사찰 금당의 형식과는 다른 석굴사원의 형식으로 조영되었지만 평면의 형태가 방형과 원형의 차이가 있을 뿐, 불상의 봉안 방식은 일반 사찰의 금당과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석재로 건조된 불전이 갖는 견고함으로 인해 창건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고대 불상과 불전 공간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석굴암의 조영 원리에 대한 탐구는 1930년대 요네다 미요지(米田美代治)의 연구를 시작으로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지금까지의 석굴암 조영 원리에 대한 연구의 공통점은 요네다 미요지가 제시했던 12당척(1척: 29.706cm)을 기본으로 석굴암 조영의 모든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이다.<sup>17)</sup> 그러나 석굴암 조영에 왜 12당척이 채택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없다. 이에 대해 필자는 불상과 불전 공간과의 연관성으로 볼 때, 석굴암 조영에 채택된 12당척이라는 모듈은 본존의 크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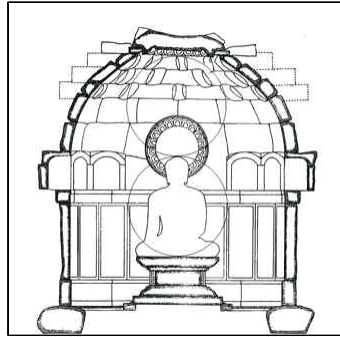
석굴암 본존상은 玄奘의 『대당서역기』에 기록된 인도 부다가야 摩訶菩提寺의 본존상과 크기뿐만 아니라 降魔觸地印을 취한 자세와 坐向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up>18)</sup> 그러므로 석굴암 본존상은 『대당서역기』에 기록된 마하보리사 본존상의 크기에 맞춰 조성되었다는 의견이 학계에 통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석굴암이 조영되기 이전에 이미 본존으로 봉안할 불상의 크기가 정해져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석굴암 본존상과 주실 입면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확인된다. 대좌 높이(163cm)를 더한 석굴암 본존상(342cm)의 높이는 총 505cm이다. 그리고 주실 바닥에서 궁륭의 천개까지의 높이는 866cm가 되는데, 이 높이는 대좌 위에 앉아 있는 본존상 위에 본존상 높이만큼

<sup>16)</sup> 한정호, 「감은사지 삼층석탑 창건과정과 의장계획에 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253, 한국미술사학회 2007, 21~2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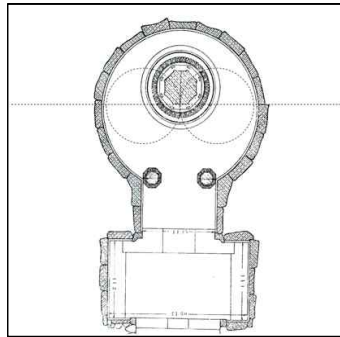
<sup>17)</sup> 米田美代治, 「慶州 石窟庵の造營計劃」, 『朝鮮上代建築の研究』, 秋田屋, 1944, 7쪽.

<sup>18)</sup> 강우방, 「石佛寺 本尊의 圖像小考」, 『미술자료』35, 국립중앙박물관, 1984, 54~56쪽.



도 5. 석굴암 주실 입면과 佛身高

더한 수치(163 + 342 + 342 = 847cm)가 궁륭의 높이와 거의 일치한다.(도 5) 이러한 결과는 장육불상을 좌상으로 조성할 경우 그 반에 해당하는 8척으로 조성하는 경우를 역으로 적용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불상의 입상은 좌상의 2배가 되기 때문에 석굴암 주실의 높이는 좌상인 본존상을 입상으로 전환했을 때의 높이를 고려하여 설정되었다고 해석된다.



도 6. 석굴암 주실 평면과 佛身高

그리고 석굴암 주실의 평면과 본존상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대좌의 위치는 평면 중심분할선에 팔각중대석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배치는 경주 사천왕사지 금당의 대좌배치와 흡사한 배치형식으로 보인다. 주실 평면과 본존상의 관계는 주실의 직경이 715cm로 불상 높이의 2배수인 684cm에 비해 약 1尺이 넓지만 무관한 수치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도 6)

왜냐하면 석굴암 본존상의 높이는 당적으로 환산할 경우 11.53척이기 때문에 건축의 모듈로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수치이다. 따라서 본존상의 높이를 바탕으로 건축에 적합한 완척으로 전환한 척도가 바로 석굴암 조영의 모듈인 12당척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1913년 석굴암이 日人들에 의해 해체 복원되는 과정에서 변형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米田美代治의 실측자료 중에는 주실 평면의 동서직경과 남북직경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석굴암 본존상과 주실 공간과의 관계를 정리하자면 석굴암 주실의 입면과 평면 규모는 본존상 불신 높이 2배의 크기에 맞춰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석굴암 주실의 이와 같은 공간 구성은 좌상인 불신을 입상으로 전환했을 때의 佛身 크기를 의식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고대 불교도들의 불상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석굴암을 근거로 고대 불전의 불상안치 공간의 원칙을 추정한다면 佛立像을 기준으로 불신의 크기에 저촉되지 않는 입면과 평면의 공간을 마련하는 기본 원칙이 존재했다는 추론이 성립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칙이 석굴암의 사례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고대 동아시아 금당 내 불상봉안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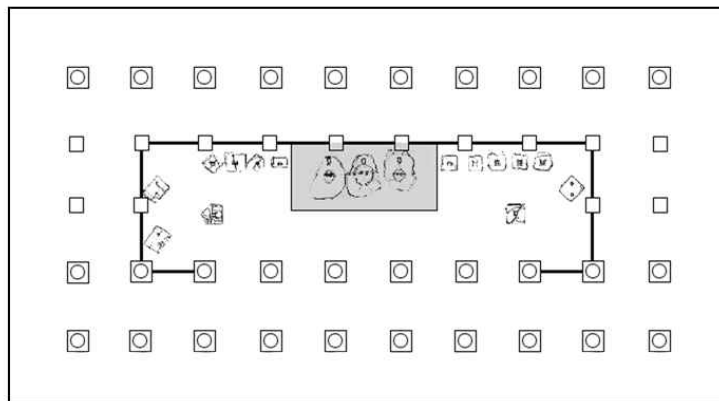
요할 것이다.

### 1. 고대 불전 內陣部의 평면과 불상의 규모

보편적으로 금당의 평면은 단실형식, 전후이실형식, 내외진이중형식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평명형식에 관계없이 금당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공간은 內陣部이다. 고대 금당의 내부 공간에서 불단이나 대좌가 안치되는 내진부를 일본에서는 ‘身舎’라는 용어로 부르는데 佛身이 안치되는 공간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의미있는 용어라 생각된다. 금당의 내진부는 예불공간과 구별되는 순수 불상을 위한 공간이다. 따라서 앞서 석굴암을 통해 유추했던 고대 불상봉안 원칙의 존재 여부는 금당 내진부 입면과 평면의 공간규모와 불상 크기의 비교분석을 통해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금당에 봉안되는 불상의 구성 형식은 불상 1구를 단독으로 봉안하는 독존이 최소 단위이며, 삼존, 이불, 삼불, 사방불, 오방불, 천불, 삼천불 등 매우 다양한 형식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 밖에 부처의 권속인 제자상과 다양한 신중상이 함께 봉안되는 경우도 있다. 봉안하기로 계획한 불상의 수량과 규모는 이들을 봉안하기 위한 불전 내부 공간의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신라의 경주 황룡사지이다.

황룡사 중금당은 전후이실형식의 불전으로 내부에는 장육삼존상을 포함하여 모두 19기의 불상이 봉안되어 있었고, 이들 불상의 대석 가운데 17기가 현존하고 있다.(도 7) 불상대석의 배치는 장육삼존상의 대석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각각 5기의 불상대석이 한 줄로 배열되어 있었으나 그 가운데 동편 끝에 놓였던



도 7. 경주 황룡사 중금당지 평면도

불상대석 1기는 유실된 상태이다. 그리고 동서 측 전방에 각각 1기의 불상대석이 놓여 있으며, 내진 동서쪽 중앙초석을 중심으로 남북 측에도 각각 2개의 불상대석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이 가운데 동편 남측의 불상대석이 유실된 상태이다. 이들 대석의 배치상태를 근거로 황룡사 중금당에 봉안되었던 불상은 장육석가삼존상을 중심으로 십대제자상과 사천왕상, 제석천과 범천상으로 추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다. 이와 비교하여 문헌자료에 따라 기술에 차이가 있고, 봉안된 불상의 존명이 불확실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洛陽伽藍記』에 기록된 永寧寺 금당의 건축구조와 그 안에 봉안된 불상의 숫자가 19軀로 황룡사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sup>19)</sup>

황룡사 중금당지는 불상이 현존하지 않아 불상의 규모와 평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불상대석의 위치를 통해 불전 내부의 불상은 모두 내진부에 배치된다는 사실과 19기에 달하는 불상의 배치형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금당의 평면구조와 연결 지어 해석한다면 불전에 봉안되는 불상의 수량은 대체로 불전 내진부의 좌우 길이와 비례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입상의 장육본존상의 높이는 약 570cm로 복원되는데, 내진부의 전후 폭이 약 10m인 점과 비교한다면 불상의 높이는 기본적으로 내진부의 전후 폭을 초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불상과 불전 내진부 평면 규모의 관계는 울주 간월사지와 같이 내부에 봉안되었던 불상이 남아있는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간월사지는 1984년 동아대학교박물관의 발굴조사를 통해 금당의 평면구조와 규모가 밝혀졌으며, 금당 내부에 봉안되었던 석조여래좌상이 인근에 남아있다. 발굴결과 내진부의 구조는 정면과 측면이 모두 1칸이며, 그 중앙에는 석조여래좌상을 봉안했던 대좌의 지대석이 확인되었다.<sup>20)</sup>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간월사지 금당 내진부 평면 규모와 불상의 높이를 비교하면 내진부 좌우 길이는 약 440cm로 봉안되었던 석조여래좌상의 높이 135cm와의 긴밀한 상관성은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봉안되었던 불상이 항마촉지인을 맺은 독존상이라는 점에서 내진부의 좌우 길이가 봉안되는 불상의 수량과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불상의 높이와 내진부 전후 폭을 비교하면 흥미 있는 사실이 파악된다.

간월사지 금당 내진부의 전후 폭은 약 330cm로 석조여래좌상 높이의 두 배인 270cm와 불과 30cm 가량 차이가 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석굴암과 황룡사지

<sup>19)</sup> 양정석, 「皇龍寺 中金堂의 造成과 丈六尊像」, 『선사와 고대』12, 한국고대학회, 1999, 292~29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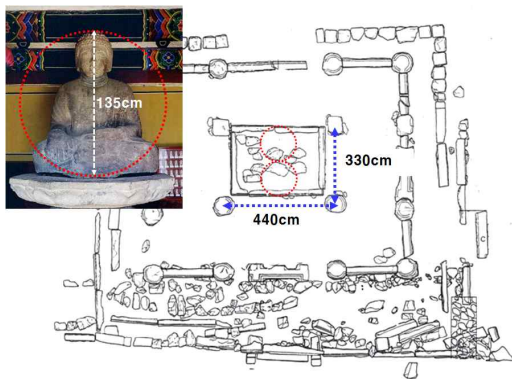
<sup>20)</sup> 동아대학교박물관, 『울주 간월사지』 I, 1985, 41~52쪽.

금당의 예와 같이 기본적으로 좌상의 불상을 입상으로 전환한 높이는 불전 내진부 전후 폭을 초과하지 않는 것과 같다. 나아가 간월사지의 특징은 내진부 중심에 배치된 불상대와 지대석의 전후 폭과 불상 높이의 두 배가 정확하게 일치하여 내진부의 평면규모가 불상의 높이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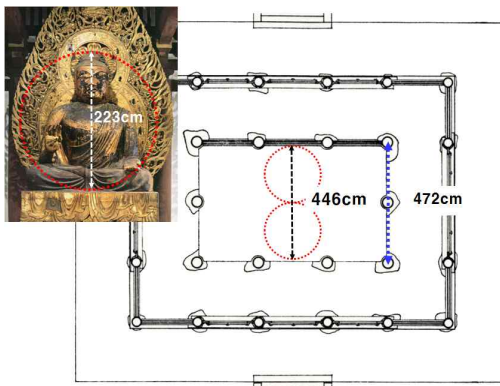
(도 8) 이와 같은 간월사지 금당 내진부 평면과 불상 높이의 연관성과 유사한 사례는 일본 奈良縣 當麻寺 금당의 사례가 있다.(도 9)

한편 立像의 본존과 불전 평면과의 관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로 경주 장항리사지가 주목된다. 경주 토함산 동편 자락에 위치한 장항리사지는 약식 발굴조사를 통해 금당지 규모가 확인되었다. 장항리사지 금당지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불전으로 전면 내진고주를 생략하고, 중앙에서 약간 뒤로 치우쳐서 높이 110cm, 폭 약 2m의 석조좌각연화대좌가 배치되어 있다. 이 금당지에 봉안되었던 석불입상은 1932년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져 전시되고 있다. 이 불상은 하반신이 결실된 상태이지만 일부 파편과 불상의 비례를 통해 추정복원도가 작성된 바 있다.<sup>21)</sup>

복원도에 따르면 불신의 높이가 368cm로 대좌와 합할 경우 금당에 봉안된 불신의 높이는 약 478cm가 된다. 이 크기는 당척으로 환산할 경우 16척에 가까운 수치로 장항리사지 석불입상은 대좌와 불신을 합한 높이를 의도적으로 장육상의 크기에 맞췄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대좌와 불신을 합한 높이는 공교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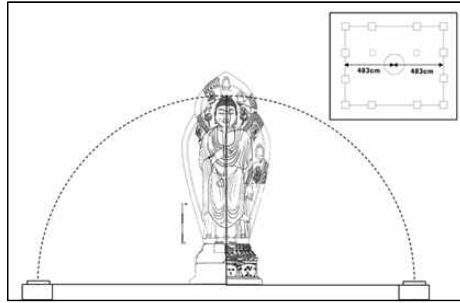


도 8. 울주 간월사 금당지 평면과 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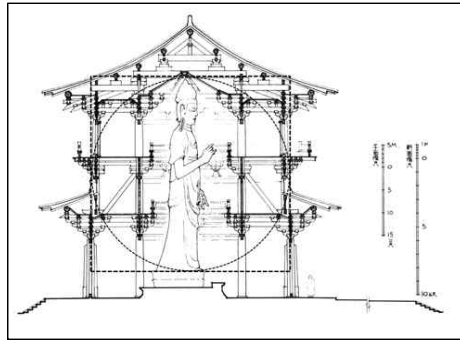


도 9. 일본 當麻寺 금당 평면과 불상

21) 大西修也, 「장항리페사 출토의 석조여래상의 복원과 조성연대」, 『고고미술』125, 한국미술사학회, 1975, 19~22쪽.



도 10. 경주 장항리사지 금당과 불상



도 11. 중국 獨樂寺 觀音閣의 내부공간과 불상

도 금당지 중앙에서 좌우 벽선까지의 거리와 일치한다.(도 10) 장항리사지 금당의 특수한 구조와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결과를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다.

고대의 사례는 아니지만 중국 하북 薊縣에 위치한 獨樂寺 觀音閣은 불전과 불상이 현존하여 앞서 살펴본 불전의 평면구조와 봉안되는 불상 크기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정면 5칸, 측면 4칸의 평면에 상층 지붕이 합각지붕인 獨樂寺 觀音閣은 統和 2년(984)에 중건되었다. 입상으로 조성된 본존을 중층건물에 봉안한 다소 특수한 사례이지만 고대 불전의 불상 봉안방식 추정에 좋은 참고가 된다. 관음각의

층수는 실제 3층이지만 외관상으로는 2층이며, 중간에는 암층이 있다. 건물 내부 중앙에 마련된 불단 위에 높이 16m의 11면관음상과 좌우에 보살상들이 배치되어 있다.<sup>22)</sup> 측단면도를 통해 본존인 십일면관음보살입상과 불전 내부공간과의 관계를 분석하면 도 11과 같이 불전의 평면과 입면이 철저하게 본존의 크기에 맞게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평면의 전후 폭은 본존 십일면관음보살상의 높이와 정확하게 일치하여 불전 내진부의 전후 폭이 봉안되는 불상의 높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뒷받침해 준다.

## 2. 고대 불전 內陣部의 입면과 불상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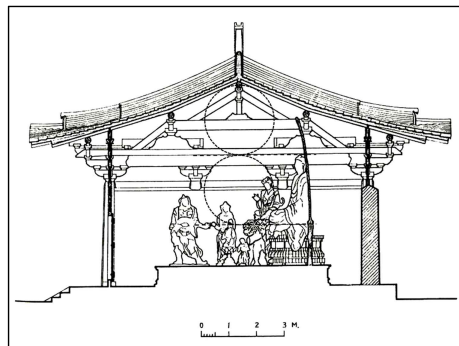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불전과 불상 규모와의 연관성은 절터 위주로 분석하여 봉안되는 불상의 높이와 불전의 평면 공간과의 관계는 파악되지만 입면 공간과의 연관성을 고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석굴암 내부공간의 높이와 불상 높이와의 관계가 확인되었듯이 고대 불전과 그 안에 봉안되었던 불상이 현존하는 사례를

<sup>22)</sup> 韓東洙·梁鎬永 역(劉敦楨·鄭沃根 지), 『중국 고대건축사』, 세진사, 2003, 313쪽.

분석한다면 불상의 높이와 입면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평면과의 관계도 더욱 분명하게 파악될 것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고대 금당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창건당시의 금당과 내부에 봉안된 불상이 원형을 유지하는 사례는 더욱더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창건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금당과 불상이라 하더라도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정밀하게 작성된 실측도면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다행히 일본 唐招提寺와 東大寺 法華堂이 불전과 함께 불상이 현존하고, 東大寺 大佛殿의 경우 풍부한 문헌자료와 현존유구를 통해 원형복원이 가능하여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아울러 정밀 실측도면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唐代에 건립된 중국의 南禪寺 大殿과 佛光寺 東大殿의 사례를 통해 고대 불전의 입면과 불상 규모와의 연관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먼저 중국 산서성 오대산에 위치한 南禪寺 大殿 현존하는 중국의 고대 목조불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정면 3칸(11.62m), 측면 3칸(9.67m)의 건물이며, 大唐建中三年(782)에 중수되었다는 목서가 보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이전에 건립된 건축임을 알 수 있다.<sup>23)</sup>

大殿의 본존으로 봉안된 석가불좌상의 크기와 불전의 정확한 실측도면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불상의 크기와 불전공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여의치 않다. 다만 여러 자료집에 소개된 측단면도를 바탕으로 본존상의 크기와 불전의 입면을 분석하면 뒤에 살펴볼 일본 東大寺 대불전과 같이 불상의 대좌에서 불신 높이의 2배를 더한 높이가 건물의 종도리 높이와 일치한다.(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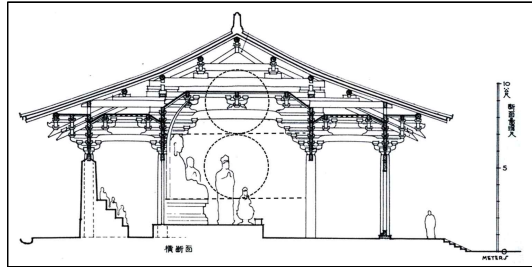


도 12. 南禪寺大殿의 입면과 佛身高

그리고 중국 佛光寺는 북위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당대 五臺山十大寺의 하나였다. 會昌 때 廢佛로 인해 파괴되었다가 재건되었으며, 東大殿은 당대 大中 11년(857)에 건립된 불전이다. 정면 7칸(34m), 측면 4칸(17.5m)의 불전 내부에는 석가, 미륵, 아미타불의 三世佛을 중심으로 협시보살, 제자, 공양보살, 천왕상 등이 가로방향으로 길게 배치되어 있다.<sup>24)</sup>

<sup>23)</sup> 윤장섭, 『中國의 建築』,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120쪽.

<sup>24)</sup> \_\_\_\_\_, 앞의 책, 1999, 124~1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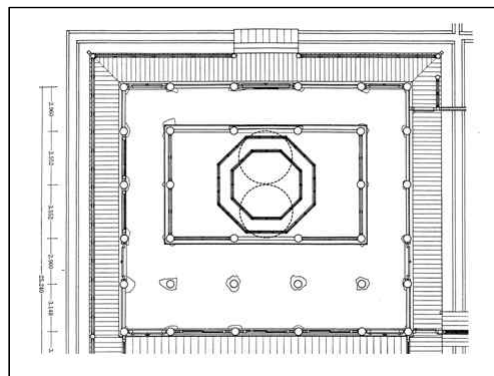
도 13. 佛光寺 東大殿의 입면과 佛身高

佛光寺 동대전 역시 정확한 실측도면을 확보하지 못하여 불상의 크기와 불전공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여러 자료집에 소개된 측단면도를 바탕으로 본존상의 크기와 불전의

입면을 비교하면 도 13과 같이 불좌상 두 배의 높이가 불전의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東大寺 法華堂의 창건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恭仁宮 기와의 사용이나 본존인 불공견색관음보살의 제작 경위로 미루어 740년에서 749년 사이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창건 당시 건물의 형태는 정면 5칸, 측면 4칸의 우진각 지붕의 건물이었으나 가마쿠라 시대에 건물 전면에 정면 5칸, 측면 2칸의 禮堂이 추가로 건립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했다. 금당에 본존상으로 봉안되어 있는 不空羂索觀音菩薩立像은 탈활건칠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제작 시기는 740년에 발발한 藤原廣嗣의 전란 당시 각 지역에 높이 7척의 관음상을 제작하라는 명에 의해 제작되었고 추정되고 있다.<sup>257</sup>

법화당의 현 본존상이 원래 법화당의 본존이 아니라는 이견도 있지만 금당 창건 이후 화재나 재난에 관한 기록이 없고, 주변에 배치된 여러 상들과 비교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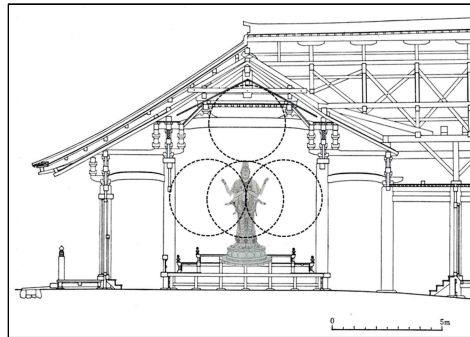


도 14. 東大寺 法華堂 내진부 평면과 佛身高

때 원래의 본존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東大寺 法華堂 내진부의 규모와 본존 불공견색관음보살입상의 크기를 비교할 때, 주목되는 것은 내진부 축간의 주간 간격이 355.2cm로 본존상 불신의 높이 362cm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다.(도 14) 따라서 불단이 마련되어 있는 法華堂 내진부의

<sup>257</sup> 岩波書店, 『奈良六大寺大觀 10 - 東大寺 2』, 1991, 5~17쪽.

측면 폭은 본존 佛身 높이의 2배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진의 입면과 불신의 높이를 비교하면 도 15(본 도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정면향의 불상을 비례에 맞춰 측면향으로 전환한 것이다.)와 같이 불상의 대좌에서 불신 높이의 2배를 더한 높이가 천개의 높이와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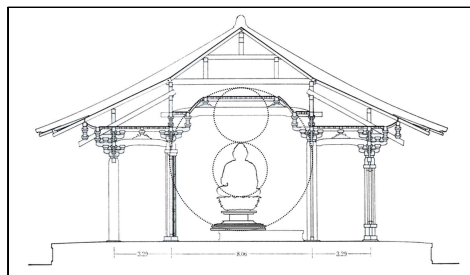


도 15. 東大寺 法華堂 내진부 입면과 佛身高

또한 唐招提寺는 당나라 淮南지방의 고승 鑑眞大師가 753년 일본에 건너온 후 창건한 사찰이다. 금당의 건립시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建立緣起』에 鑑眞의 제자 如寶가 인연이 있는 단월을 데리고 건립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773년 감진의 사후인 寶龜年間(770년대)으로 보는 설이 유력하다.<sup>26)</sup> 唐招提寺 금당은 나라시대 건축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건물이다. 단층 우진각 지붕의 건물로서, 정면 7칸(당척 94척), 측면 4칸(당척 49척)이며, 석조기단 위에 건립되었다. 금당의 내부는 정면 5칸, 측면 2칸을 내진으로 만들고, 내진 중앙에 위치한 불단에는 노사나건칠불좌상이 안치되어 있다.<sup>27)</sup>

금당 창건이후 1270년~1693년 사이에 3회의 수리를 거치는 동안 지붕의 내부구조와 높이에 변화가 있었음이 1956년에서 57년에 걸친 해체수리를 통해 확인되었다. 해체수리 당시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금당 창건당시의 원형을 추정 한 복원도면이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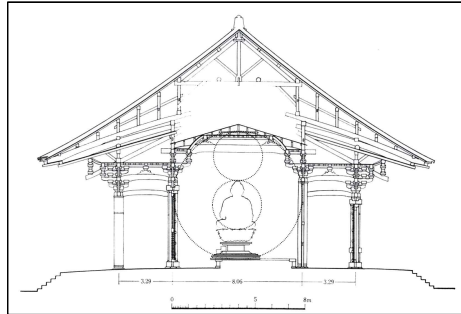
원형복원도면을 바탕으로 금당 내진부 규모와 본존 노사나불좌상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흥미로운 점은 불단이 배치된 측간의 주간 간격이 806cm로, 대좌(높이 203cm)와 불신(높이 304.5cm)을 합한 높이에 불신을 더한 높이(812cm)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내진부의 입면과 불신의 높이를 비교하면 도 16



도 16. 唐招提寺 내진부 입면과 佛身高(복원도면)

<sup>26)</sup> 岩波書店, 『奈良六大寺大觀 12 - 唐招提寺 1』, 1991, 19~26쪽.

<sup>27)</sup> 윤장섭, 『日本の 建築』,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127~128쪽.



도 17. 唐招提寺 내진부 입면과 佛身高(현상도면)

(도면은 정면향의 불상을 비례에 맞춰 측면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과 같이 불상의 대좌에서 불신 높이의 2배를 더한 높이가 중보의 높이에 이른다. 이러한 연관성은 복원도면 보다 현상도면에 적용했을 때 보다 뚜렷한 연관성을 보여 복원도면의 정확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도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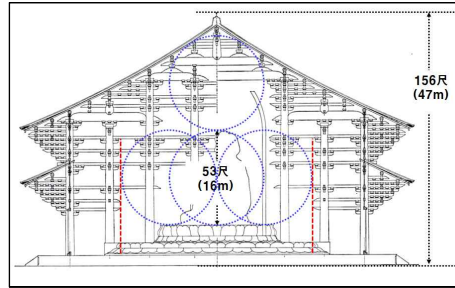
끝으로 일본 奈良의 東大寺 대불전은 나라시대를 대표하는 불전이다. 聖武天皇은 8세기 초 어지러운 정세를 佛力으로 타개하고자 天平 17년(745) 東大寺 노사나대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天平勝寶元年(749) 10월에 완성하였다. 노사나대불상이 봉안된 大佛殿은 752년에 준공되어 그해 4월에 개안공양식이 개최되었다. 창건 이래 잘 보존되어 오던 대불전은 治承 4년(1180)에 兵火로 소실되었고, 建久 6년(1195)에 재건되었다. 재건된 대불전은 창건 당시의 것과 규모면에서 동일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永祿 10년(1567)의 병화로 대불전은 다시 한 번 불에 났고 慶長 15년(1610)의 태풍으로 무너졌다. 이후 대불전의 재건은 公慶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는데 貞享 5년(1688)에 공사를 시작해서 寶永 6년(1709)에 완공하여 낙성식이 거행된다. 현재의 대불전과 대불은 당시에 재건된 모습이다.<sup>28)</sup>

東大寺 대불전과 대불은 관련된 고대 문헌자료가 풍부하여 창건당시의 원형을 파악하는데 무리가 없다. 대불전은 높이 7척의 기단 위에 건립된 중층 건물로, 창건당시 대불전의 규모는 정면 11칸(290척), 측면 7칸(170척), 높이는 156척이었다. 그 중 정면 7칸, 측면 3칸은 내진부 공간인데 기둥이 없고 주위 1칸은 외진을 둘렀다. 중앙에는 높이 53척의 대불상을 안치하였으며, 그 밑에 있는 동계 연화좌의 크기는 내진의 너비에 딱 차게 되어 있었고, 그 밑을 받치고 있는 석조 연화좌는 외진의 너비에 딱 차는 규모이다.

현존 유구와 풍부한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원형에 가깝게 작성된 대불전 복원도면을 바탕으로 불전 내진부 규모와 본존 노사나불좌상의 크기를 분석하면 대불전의 높이는 철저히 본존상의 크기에 맞춰서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내진부의 입면과 불신의 높이를 비교하면 불상의 대좌에서 불신 높이의 2배

<sup>28)</sup> 岩波書店, 『奈良六大寺大觀 10 - 東大寺 1』, 1991, 7~19쪽.

를 더한 높이가 대불전 중도리 하부와 일치한다. 그리고 불전의 평면과 불상의 크기를 비교하면 불신의 높이 2배의 길이가 외진 너비에 딱 차게 배치된 석조연화좌의 직경과 일치하여 불상의 크기가 불전 평면설정에 절대적 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도 18)



도 18. 일본 東大寺 대불전 내부공간과 불상

## V. 맺음말

금당을 건립하는 목적은 불상봉안에 적합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금당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상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고에서는 금당 건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상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불상의 크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불상의 크기와 관련된 불교경전과 고대 문헌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편적으로 금당의 본존상으로 봉안되는 최소 규모의 불상은 등신불상이며, 재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장육불상 규모 이상의 불상을 금당에 봉안할 경우 금당의 건축에 앞서 불상이 안치되는 사례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불상의 크기와 봉안되는 공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석굴암을 분석한 결과 석굴암 주실의 공간 설정은 본존상 크기에 맞춰 계획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석굴암 분석을 통해 유추된 고대 불상봉안 원칙은 불상을 생명체와 동일시하여 佛身이 대좌 위에 서거나 옆으로 누웠을 때의 크기에 저촉되지 않는 봉안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렇게 유추된 고대 불상봉안 원칙이 보편적으로 통용되었을 가능성은 현존하는 고대 금당의 내진부 공간규모와 봉안된 불상 높이의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고대 금당의 내진부는 예불공간과 구별되는 순수 불상봉안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석굴암의 주실과 같은 공간이다. 다만 석굴암 주실이 원형평면인 것과 달리 금당의 내진부는 정면 너비가 넓고 측면 폭이 좁은 장방형의 공간이다.

현존하는 동아시아 고대 금당 내진부의 평면규모와 본존상 크기를 비교해 보면 불신 높이의 2배 또는 대좌를 포함한 불신 높이가 내진부 측면 폭과 일치하

는 경향을 보이며, 일치하지 않더라도 초과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금당 내진부 입면 공간을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좌상을 기준으로 불신 높이의 2배가 금당 종도리 높이를 벗어나는 예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은 불신 높이가 16m에 달하는 일본 東大寺 대불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고대 불전건축의 전제조건으로 적용되었음을 뒷받침 해 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파악된 고대 불전 내진부의 공간과 불상 규모와의 상관성은 고대인들의 불상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즉 불전에 봉안되는 불상은 부처의 형상을 모방한 모형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神像이므로 그 신성을 유지하기위한 공간적 배려의 결과로 이해된다.

■ 투고일 2013년 7월 29일 | 심사완료일 2013년 8월 16일 | 게재확정일 2013년 8월 18일 ■

## 참고문헌

### <사료>

『三國遺事』  
『日本書紀』  
『大唐西域記』  
『大正新修大藏經』

### <국내>

大西修也, 「장항리폐사 출토의 석조여래상의 복원과 조성연대」, 『고고미술』 125, 한국미술사학회, 1975.  
강우방, 「石佛寺 本尊의 圖像小考」, 『미술자료』35, 국립중앙박물관, 1984.  
문화재관리국, 『황룡사지 발굴조사보고서』1, 1984.  
동아대학교박물관, 『울주 간월사지』 I, 1985.  
아세아문화사, 『梵魚寺誌』, 1989.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2』,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5.  
이강근, 「화엄사 불전의 재건과 장엄에 관한 연구」, 『불교미술』14, 동국대학교박물관, 1997.  
이강근, 「한국 고대 불전건축의 장엄법식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12, 한국미술사교육학회, 1998.  
양정석, 「皇龍寺 中金堂의 造成과 丈六尊像」, 『선사와 고대』12, 한국고대학회, 1999.  
윤장섭, 『中國의 建築』,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_\_\_\_\_, 『日本의 建築』,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韓東洙·梁鎬永 역(劉敦楨·鄭沃根 지), 『중국 고대건축사』, 세진사, 2003.  
한정호, 「감은사지 삼층석탑 창건과정과 의장계획에 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253, 한국미술사학회 2007.  
노명호·이승재,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 『불국사 석가탑 유물 - 중수문서』, 국립중앙박물관, 2009.  
한정호, 「황룡사 중금당지 불상대석에 대한 고찰」, 『미술사연구』24, 미술사연구회, 2010.

<국외>

米田美代治, 「慶州 石窟庵の造營計劃」, 『朝鮮上代建築の研究』, 秋田屋, 1944.

前田 泰次, 『大佛と大佛殿-東大寺』, 岩波書店, 1974.

岩波書店, 『奈良六大寺大觀 9 -東大寺』, 1991.

岩波書店, 『奈良六大寺大觀 12 -唐招提寺』, 1991.

김동현, 「皇龍寺の建築計劃に關する研究」, 東京大學 博士學位論文, 1992.

宮治昭, 「巨大仏の系譜 -彌勒信仰と盧舍那仏」, 『東大寺のすべて』, 奈良國立博物館, 2002.

榮原永遠男, 「東大寺の歴史」, 『東大寺のすべて』, 奈良國立博物館, 2002.

Abstract

##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cale of Buddhist Temples and Statues of the Buddha in ancient East Asia

Han, Joung-Ho

A Buddhist temple is a structure to enshrine Buddhist statues, so the scale and form of the Buddhist statue are the preconditions to set up the space inside the Buddhist temple. This article considers how the scale of the Buddhist statue influences the establishment of the space inside an ancient Buddhist temple in East Asia.

First of all, according to the result of examining the scriptures and ancient literatures about the size of Buddhist statues, generally the Buddhist statue with the smallest scale enshrined as the main statue of a Buddhist temple is Deungsinbul(等身佛). And it may differ by what material is used, but when the Buddhist statue bigger than the scale of Jangyuk(丈六) Buddhist statue is to be enshrined in main hall, in many of the cases, the Buddhist statue is enshrined before building main hall. And Deungsinbul has greater meaning as a Buddhist statue constructed identically as the body of a certain figure rather than its meaning as a Buddhist statue in the scale of the human body.

In order to figure out the correlation between a Buddhist statue's scale and the space where it is enshrined, the study analyzes Seokgulam(石窟庵). According to the result, it has been found that the space of the main room in Seokgulam was planned and built correspondingly to the size of the main statue. The facade of the main room in Seokgulam was set up as being twice as high as the main seated statue with the pedestal as the starting point. The width of the plane does not violate it, either. As a human being's residential space should secure the smallest height

higher than a person's height and the plane where a person can lie down, we can analyze that the internal space of the Buddhist temple is to be set up applying the same precondition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Buddhist statue.

In order to verify the possibility that the principle of Buddhist statue enshrinement figured out by the analysis on Seokgulam may have been generally applied to ancient Buddhist temples in East Asia, the study focuses on the sacrarium part in ancient Buddhist temples. The sacrarium part of a Buddhist temple is the space built purely for Buddhist statue enshrinement, and it is distinguished from the space for Buddhist service. According to the result of comparing the plane of the sacrarium part in the existing ancient Buddhist temples of East Asia and the size of the main statue, twice of the Buddhist statue's height or the Buddhist statue's height including the pedestal tends to correspond to the width of the side of the sacrarium part, and even if it does not correspond, it never exceeds it. And about the height of the facade in the sacrarium part, when the main statue is a seated one, twice of the Buddhist statue's height never deviates from the height of ridge beam of the Buddhist temple. Also, it has been found that this principle is also applied to the Buddhist temples in the era of Tōdai-ji in Japan whose Buddhist statue's height is up to 16 meters. This supports that it was applied as the precondition for building ancient Buddhist templ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pace of the sacrarium part in ancient Buddhist temples and the scale of Buddhist statues which has been figured out through above consideration reflects ancient people's consciousness of Buddhist statues. We can understand that the Buddhist statues were not mere sculptures replacing Buddha but demanded spatial consideration to maintain their divinity as a divine statue with life.

Key Words : Geumdang, Buddhist temple, Buddhist statue enshrinement, architectural plan, Jangyuk Buddhist statue, Seokgulam